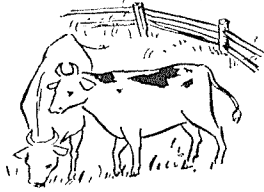


韓國畜産의 復興論



韓國畜産學會 李 用 斌

韓國畜産도 다른 農業이나 外國의 畜産과 마찬가지로 基本的原理에 따라 科學的인 技術로서 種畜改良, 家畜飼養의 改善 및 管理의 改善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 合理的인 經營과 流通의 體系化가 問題 된다.

韓國도 韓民族의 歷史와 함께 家畜을 길러 왔는데 前近代的인 方法으로 家畜을 길러 왔다. 即 家畜을 기르는 것을 外國과 같이 Art and not Science 라고 생각 했으나 近間에는 畜産業의 發達로 Both art and science 라는 概念, 즉 科學的인 技術의 뒷받침 없이는 안될 것으로 믿는다.

1. 種畜改良問題 : 種畜改良은 畜産業의 Back home 으로서 畜産業에서 重要(important)한 問題인데 우리나라는 過去부터 歷史的 遺物로서 韓牛나 在來家畜(돼지, 닭)이 있었으나 現代的 産業發展에 寄與할만한 資質을 具備 못하였고 또 積極的인 改良을 못한채 至今에 이르렀다. 그런데 先進各國에서는 家畜改良方法의 三大道具인 近親繁殖과 雜種繁殖 및 選擇을 잘 組合하여 各家畜의 品種改良을 꾀하여 育種學의 窮極의 目標인 雜種強勢를 얻어서 그들 生産을 高度로 向上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基礎畜(原原種二近交系統)조차 整備되지 못하고 一部種畜을 導入하고는 있으나 아직 科學的이고 技術的인 基盤이 確立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各家畜의 種畜改良에 對한 基盤도 造成이 못되고 있다. 더구나 原原種을 利用하여 新品種을 作成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交配方法으로 雜種強勢를 얻을만한 能力이 안되었으므로 이 重要한 問題를 解決하지 않는 限 우리나라의 畜産은 恒時 先進 種畜國家에 예측될 수 밖에 없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規模가 큰 種畜 種禽場을 國家財政으로 確立하여 運營함이 必要하다고 思慮된다. 但 中小家畜과 家禽에 限해서는 外國과 같이 個人的으로 種畜을 生産하여 商業的으로 運營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種畜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現在 無秩序하게 取扱되는 것을 管轄 調整함이 必要 할것이다.

現在 狀況은

- 種畜의 學術的研究.....各農科大學
- 種畜의 導入 .....農林部
- 種畜의 生産 .....國立道立種畜場
- 種畜의 登錄 .....種畜改良協會
- 種畜의 普及(導入).....民間種畜家
- 種畜의 人工授精 .....農協中央會와 個人
- 種畜의 試驗 .....農村振興廳(畜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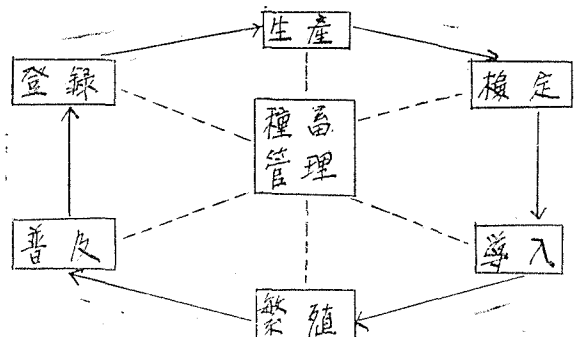


그림 1. 國家의水準에서의 種畜管理 模式

以上과 같이 分散된 種畜關係 機關을 最少限 그림 1과 같이 調整해야겠다.

**飼料問題** : 種畜改良을 重要(important)라고 보면 飼料問題는 切實(urgent)한 問題라고 보겠다. 大體로 우리나라의 家畜을 家畜單位(Animal unit)로 換算하면 1,600,000 A.U 인데 其中 草食動物이 약 1,000,000 이고 單胃動物이 약 600,000 A.U 이다. 따라서 草食動物은 草資源을 確保해야 하고, 單胃動物은 主로 濃厚飼料를 確保하여 先天的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資質을 充分 發揮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草資源에 關해서는 過去 稿桿類인 芻藎이나 그밖의 作物을 收穫한 後 거칠고 營養價가 없는 것으로 草食動物 特히 韓牛를 飼育해 왔으나 現代인 用畜인 乳牛 肉牛 등에는 効率인 生産을 할수가 없으므로 亦是 積極인 草地造成과 飼料作物栽培(畜糞作을 包含)를 해서 乳生産과 牛肉生産을 戒해야 하겠다. 이에 關해서 國土의 効率인 利用 即 全國土의 生産化의 一選으로 草地造成이 可能한 곳은 牧野地로 開發해서 良質의 乾草와 現草를 生産하여 草食動物의 年中 生産을 하도록 힘써야 하겠고 既耕地의 高度利用化의 一選으로 畜糞 및 輪作體系를 確立하여 草資源確保가 急先務인 것이다. 「草는 即 食糧이다」라는 理念으로 過去와 같이 「풀을 雜草로 蔑視해서는 絶對로 안될 것이다.

**濃厚飼料問題** : 近間에 國民의 生活向上으로 畜產物消費가 急激히 增加함과 同時에 第一次産業中 比較的 企業化가 容易한 畜產業이 亦是 急히 發達함에 따라 特히 養鷄業은 過去의 零細性을 脫皮하고 專業인 養鷄業이 發達하고 있다. 이에 따라 飼料工業이 發達되어 不足된 原料를 國內에서 供給을 받지 못하고 國外에서 導入하지 않으면 안될 地境에 이르렀다. 國內 調達인 粟 小麥麵 등도 結局 外穀導入의 副産物이므로 專業인 養鷄는 80~90%가 外穀에 依存하고 있으므로 養鷄生産品인 鷄卵과 鷄肉에 對해서는 深重히 考慮해야 할 것이다. 現在와 같은 畜產物 消費趨勢로 보아서 第三次五個年末에 가서는 1億弗의 外穀飼料 導入이 필것이라는 憂慮조차 하게 된다.

72년부터 急速히 열린 肉類 特히 豚肉의 對日輸出이 可能하게 되어 3,800<sup>U</sup>/T (약 6,000,000弗)에서 今年에는 8,000,000~10,000,000弗의 豚肉輸出이 可能하고 76年度에는 20,000,000~30,000,000弗의 豚肉輸出을 생각할 程度로 希望인 分野에서는 外穀飼料를 導入해서라도 輸出養豚業에 連結시켜도 無妨하다고 사려되나 可及的 國內飼料資源인 現飼料, 農場 工場의 副産物을 極度로 利用하는 方案도 아울러 考慮해야 할 것이며, 輸出과 同時에 날로 增加되는 國內 肉類需要도 充分히 考慮해야 할 것이다. 養豚도 養鷄와 마찬가지로 專業乃至 企業인 養豚이 發展될 可能性이 많으므로 한개의 基幹産業으로 考慮에

넣어서, 世界的으로 不足을 느끼는 肉資源生産을 戒해야 할 것이다.

**經營 管理의 改善問題** : 世界的으로 家畜의 生産費와 消費價格의 差, 即 margin의 減少로 自然히 經營의 大型化가 一般인 趨勢이다. 特히 畜產은 他 農業에 比하여 四季節을 가리지 않고 企業化가 可能함으로 經營上의 大型化와 그 改善은 過去 10年間 急速度로 進展하고 있다. 따라서 零細인 經營에 比하여 科學인 技術導入을 하여 合理인 經營을 戒하는 畜產業의 近代化 즉 「새마을 畜産」이 잘 되고 있는 便이다. 但 우리나라 農家가 資本的으로나 規模上으로 零細함으로 零細畜產經營者에게 資金과 技術의 뒷받침으로 經營規模를 擴大시키는 同時에 合理인 經營一體系化를 確立해야 할 것이다. 이에 關해서는 個人的 經營으로서는 多量飼育을 좀더 發展시켜야 할 것이고, 한편 團地化, 組合인 確充 나아가서는 部分乃至 完全協業化까지 到達하도록 目標을 세워 經營改善을 할것은 勿論이다.

**畜產協同組合問題** : 61年度의 畜產協同組合이 農協에 吸收된 以來 畜產의 發展이 잘 안된것만은 事實이다. 따라서 養鷄과 같이 單一組合으로 分離하여 生産에서 부터 加工 販賣에 이르기 까지 單一化하여 畜產金庫 등을 設置하고 畜產振興公團을 提唱하는 바이다. 畜產業의 本質은 投資를 많이 하고 利益을 많이 올리는 것이 特徵이다. 더구나 種畜導入問題, 莫大한 外穀飼料導入, 零細畜產의 企業化, 流通改善問題, 나아가서는 畜產物 輸出問題 등을 圓滑히 遂行하는데 國家인 規模로 畜產振興公團이 必要하며, 外國에서 하고 있는 milk board meat board 혹은 wool board 등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畜產物價格의 周期的인 波動인 pig small cycle, egg cycle, 쇠고기 파동, 우유파동 등을 解消하는 價格의 平準化 및 畜產物의 輸出에 對한 支援, 生産資金의 融資 등을 容易하게 해야 할 것이다.

**結論** : 「家畜」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듯이 “농[家]에서 돼지(豚)를 키우면 밭(田)이 검어(女)진다”는 有畜農業의 基本的인 提示에 따라 畜產業을 發展시킨다는 것에는 추호도 다름이 없지만 現代의 資本主義體制下에서는 恒時 副業인 畜産에서 企業인 畜産으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是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한가지 남아 있는 問題는 過去 英國의 産業革命때와 같이 “Sheep eat man”이라는 現象이 韓國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零細 農家의 發展의 解消問題는 亦是 畜産分野에도 남게 될것이니 이 問題는 政策的으로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國民生活 向上과 畜產物 需要는 正比例하므로 經營의 大型化에 따르는 畜產公營問題도 他 先進國家와 같이 惹起될 可能性이 潛在해 있으니만큼 十分 考慮하여 前轍을 받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